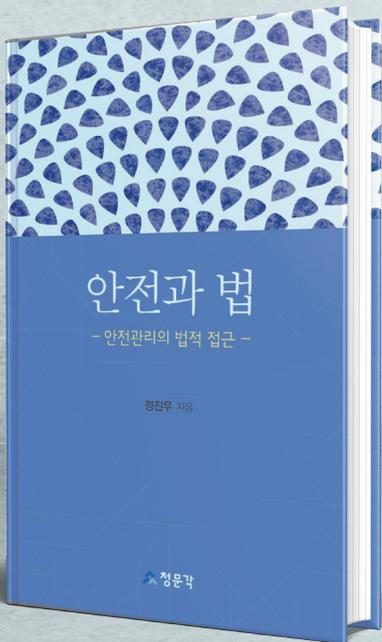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법학박사)

안전과 법 - 안전관리의 법적 접근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
청문각 | 2019. 7. 31.



법은 사회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만든 행위준칙이다. 회사의 규칙은 회사 내부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만든 행위준칙이다. 안전 역시 사회생활과 회사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는 만큼 법·규칙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따라서 안전을 법·규칙의 관점에서 접근해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안전과 법>은 국내 최초로 안전관리를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한 책이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

저자는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폭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안전관리에 접근하는 일은 좋은 삶든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다양한 법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 반드시 출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주된 집필 동기였다.

그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은 기술적·공학적으로 접근한 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법적 접근을 포함해 안전관리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많았다. 안전관리학은 융복합 학문이자 실사구시적 응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적 접근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수 불가결하다. <안전과 법>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과 법>은 저자가 쓴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다년간 강의 교재로 준비하고 활용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저자가 교수가 된 이후 '안전과 법'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해 강의한 것은 저자에게 모험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6개 장으로 구성해 안전관리학의 종합적 접근 이뤄져

〈안전과 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위험과 법규제’에서는 리스크(위험)에 대한 법적 접근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법적 관점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 리스크와 법의 구체적인 관계를 소개하고, 소위 ‘위험사회(리스크 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적 쟁점에 어떻게 접근할지 제시한다.

제2장 ‘안전과 책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을 때 어떤 논리에 의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지 다룬다. 과실범, 사고조사·수사, 휴면에러, 비난·제재 등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3장 ‘산재예방과 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과 구성원의 역할, 형사적·민사적·행정적·사회적으로 부과받는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어떤 근거와 메커니즘에 의해 벌칙을 부과받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제4장 ‘산재보상과 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이뤄지는 보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과 보상 내용·절차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다. 그리고 최근 산재보험으로 편입된 출퇴근재해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명시된 보상·배상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5장 ‘안전문화와 규칙’은 사회의 법과 조직의 내부규칙이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법규칙 위반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법규칙의 제정·운영 방안과 더불어 법규칙 준수의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6장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인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기초와 개요, 목적, 구성요소 및 관련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면책 사유 및 제한 등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중요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산업보건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독자의 필독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보건과 대비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책의 제목인 〈안전과 법〉에서의 안전은 보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책에서 안전관리 뿐 아니라 보건관리를 포함시켜 설명하는 만큼 기업체의 보건관계자, 보건전문기관 종사자, 산업보건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안전보건에 관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건 관리를 법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책에 소개된 참고문헌을 보는 것만으로도 산업보건 관리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다. 산업보건 ‘기술자’를 넘어 명실 상부한 산업보건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독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안전과 법〉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 산업보건을 융복합적으로 접근한 논문과 책이 계속해서 출간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산업보건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사회와 활발히 교감하는 대중적인 분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